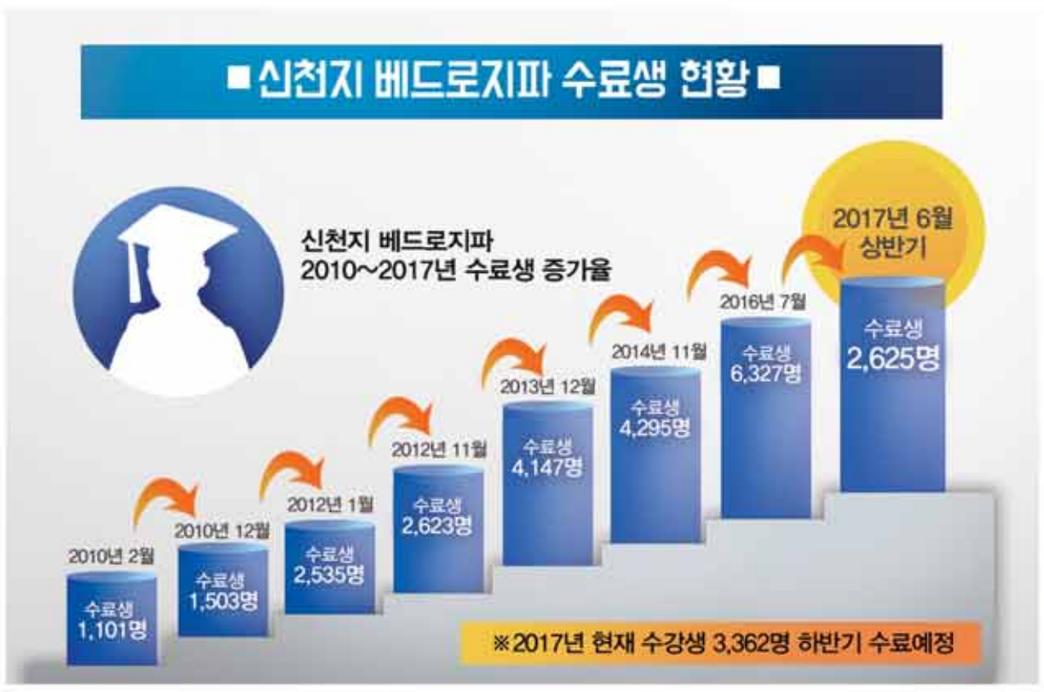
신천지 베드로지파 급성장, 이유는 '진리 말씀'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에서 2625명의 수료생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지난해 6327명, 올해 상반기만 2625명 수료

수료식 현장스케치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생 현황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에서 수료했다는 의미로 수술을 넘기고 있다.

▲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 후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총원장, 지재섭 베드로지파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꽃다발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 후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총원장, 지재섭 지파장이 수료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천지-한기총 교리비교 영상 공개 후 수료생 급증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지파가 지난해 단일지파로는 최대인 6327명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만 2625명이 수료해 교계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해당하는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는 매년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성도수가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에 따르면,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생은 지난 2012년 2623명, 2013년 4147명, 2014년 4295명, 2015~2016년 6327명, 올해 상반기 2625명이며 하반기에도 수료식을 예정하고 있어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관문으로, 기독교의 경서인 성경의 참뜻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다.

특히 수료생들이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베드로지파는 양적 성장세와 발맞춰 성도들 신앙의 질적 완성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수료생 뿐 아니라 전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베드로지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5기 2반 수료식에 참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성경 6천년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성경의 옛것과 새것을 내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처럼 성경 안에서 자유로이 가져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알아서 성경이 말한 모든 것에 주인과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체로서 완벽한 깨달음을 가져 무엇이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재섭 베드로지파장은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참 신앙을 하기 위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봉함되었던 요한계시록의 참뜻이 풀어지는 곳은 없다. 오직 신천지예수교회에만 계시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번에 수료한 한 수료생은 "여러 교단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봤지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 기준으로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며 "비로소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고, 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에서 2625명의 수료생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4년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 4295명 수료생 단체사진

재림 때의 일인 요한 계시록 예언이 성취된 계시말씀을 배우고 재림 주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준비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